

# 여야협상 다시 교착...내일 본회의 앞두고 전운고조

## 정의장·새누리 “野 불참해도 계류 법안처리 강행”

## 野 “조금만 미뤄달라”...29일로 절충 가능성 주목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대표의 국회 정상화 물꼬짓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원내 협상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기존 입장에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도 당분간 만날 계획이 없는 상황여서 극적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협상 재개를 원내 수석부대

표 수준으로 낮추고 서로 분위기만 타진하는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교착 국면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의사 일정에 계속 불참한다면 이미 확정된 대로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 91건을 상정한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단독국회’를 압박하지 말고 일정 조정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상 26일 본회의 강행 의지

를 재확인 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이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12월2일(예산안 상정) 시한을 맞출 수 있다”며 “의사일정을 단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야당 불참 시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해외계류 중인 의원들과 국무위원 겸임 의원들도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안 단독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지 못하겠지만 여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 등의

사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만남이 주목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출구를 찾을 경우, 여야가 극적으로 정국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와 유가족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칠 경우 오는 26일 새누리당의 단독 본회의 강행과 함께 정국 파행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국 파행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점에서 막판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26일 본회의는 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시장 윤장현 공천은 호남정치 변화 열망하는 시민에 대한 보답이었다

#### 안철수 의원 홈페이지 ‘회고 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4일 6·4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윤장현 광주시장 공천 문제에 대해 “호남정치의 변화를 열망하는 광주시민의 마음에 개혁공천으로 보답하고 싶었다”며 “당내경선을 통한 공천은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7·30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지난 2년을 돌아보며”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2년간 현실 정치 속에서 실제로 경험해보니 부족했던 점들이 많았다. 정확한 실상을 알게 되었다”며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합당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이끄는 거대 양당 중 한 축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탄생의 명분이기도 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무산되면서 동력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여론조사에 부치기로 했던 것은 대표가 된 직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승리를 통해 튼튼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세월호 정국과 관련해 “정치권의 잘못으로 정쟁으로 비관받게 한 점에서 정치권 모두는 역사에 큰 죄를 짓고 있다”며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표로 있는 동안 잘 마무리 짓지 못하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유가족 대표 면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24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을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예산·증세논쟁 ‘진실공방’ 확산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당장,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증세’라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감세 주장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적극적인 반격으로 국면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 “새정치연

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15년 정부예산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는 양심의 문제”라고 정식으로 문제를 거론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은 재벌·대기업과 부자예견 온갖 세금을 감면하며 애꿎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쌈짓돈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문희상, “모바일 투표 도입 반대” 급선회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전날 자신의 ‘모바일 투표 제도입’ 시사 발언에 대해 비노(비노무현) 진영이 크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자, ‘도입 반대’ 입장으로 급선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모바일 투표 논란과 관련, “(전대) 물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편파적이라 생각하는 후보나 어떤 사람들이 있는 한 채택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있지만 결론은 ‘안 된다’ 였다”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은 현대적 첨단기라서 투표방식

으로는 더 좋은 게 없고, 모바일로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선거는 다르다”며 “비밀선거 위반이고 100% 신뢰할 수 없는 법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당에서 어떻게 정하든 간에 선거 방식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며 “특히 특정 계파에 유리할 수 있다면 채택할 수 없는 것이고, 전대준비위에 각 계파가 모여 물을 만들기 때문에 합의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혁신실천위원장 4선의 원혜영 의원 임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혁신 작업을 담당할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에 수도권 출신의 4선 중진인 원혜영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원 의원의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며 “실천 가능한 혁신 과제에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의원은 원내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당 정치혁신실행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온건한 합리파로 분류되며 계파 색이 얇은 편이나, 법친노(친노무현)계에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 박지경기자 jkpark@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종도리별 장학금 소화기 500여대, 2,400만원, 100대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안사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 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5등 자전거 12명  
2등 드림세탁기 3명 6등 생활용품세트(대) 90명  
3등 세습기 9명 7등 생활용품세트(중) 150명  
4등 쿠키인력발사 12명 8등 이차상 1200명

\*동급사은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동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